

K-방산 글로벌 진격

# 로봇 등 유·무인 무기체계 고도화... 미래 전장 이끈다

美 AI 방산기업 안두릴 협력 확대

HD현대 무인수상정 설계·건조 계약  
현대로템 지휘통제체계 구축 MOU  
대한항공 한국형무인기 기술 고도화



브라이언 쉼프 안두릴 인더스트리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7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한국 방산·제조 기업들이 미국 인공 지능(AI) 방산 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손잡고 공중·해상·지상을 아우르는 AI 무인전력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에는 무인함정, 대한항공은 자율형 무인기, 현대로템은 유·무인 복합(MUM-T) 지휘통제체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기존 플랫폼 제작 역량에 안두릴의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 방산 시스템을 접목하는 흐름이다. 브라이언 쉼프 안두릴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7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빠르고 미래지향적이며 기술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함께 갈 수 있는 흔치 않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또 "오늘날 전장의 핵심 과제는 압도

적인 정보 속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래티스를 통해 정보 처리에 소모되던 역량을 자동화해 지휘관이 핵심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내 방산·제조 기업들은 이 래티스를 기존 플랫폼에 접목하며 안두릴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인 협력은 HD 현대와의 해양 무인체계 분야다. 양사

는 지난해 8월 무인수상정(USV)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뒤, 11월 무인수상정 설계·건조 계약으로 협력을 구체화했다. 지난 2월에는 공동 개발을 위한 USV 기본 설계를 마쳤고, 4월 미국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AS 2026)에서 자율 무인수상함(ASV) 시제함 공동 건조 착수를 발표했다. 해당 시제함은 오는 10월 완공 후 미국 연안에서 시험 운항에 투입될 예정이다.

존킴 안두릴코리아대표는 HD현대와의 협력에 대해 "한국기업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가 제작한 무인기에 안두릴의 래티스를 탑재해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최근 국내 시험장에서 무인기 3대가 원격 조종 없이 자율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AI 기반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물론 국내 생산 기반 구축과 수출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두릴과의 협력 범위는 해상과 공중을 넘어 지상 무기체계로도 넓어지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날 안두릴과 AI 기반 유·무인 복합(MUM-T) 통합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HR-세프'와 다중보행 로봇 등 무인 플랫폼에 래티스를 적용하고, 향후 장갑차 등 유인 전투차량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통합 지휘통제체계는 드론 위협 대응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공중 정찰 드론이 적 드론을 탐지하면 관련 정보가 지상 기동무기체계로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휘관의 대응 판단이나 요격 체계 운용이 이뤄지는 식이다. 앞서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도 안두릴과 미래전 무기체계 개발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안두릴은 한국 기업을 단순 협력사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쉼프 CEO는 "한국에는 훌륭한 공급망이 있고, 규모 있는 양산과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적 조건과 파트너 적합성이 맞다면 지분 참여 등 자본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 한화 방산 계열사, 한미방산 협력 구체화

美 국방 고위관계자 초청 간담회  
투자·생산·기술분야 등 과제 논의

한화 방산 계열사들이 미국 국방 고위 인사단과 만나 그룹의 방산 역량과 글로벌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지상·항공·해양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미 방산 협력의 접점을 넓히고 투자·생산·기술 분야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지난 6일 서울 장교동 한화

빌딩에서 해리 해리스 전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선임 장성급 인사, 미국 국방정보국(DIA) 고위 관계자 등 20여 명을 초청해 한미 방산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측에서는 서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을 비롯해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주요 경영진이 자리했다. 이들은 그룹 방산 부문의 글로벌 사업 현황과 비전, 주요 무기체계 역량을 소개하고 지상·항공·해양 분야에서 한미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향을 공유

했다. 미국 측 인사들은 한화의 방산 체계 역량과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화의 방위산업 역량이 한미 동맹을 뒷받침하는 주요 협력 축으로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해리스 전 사령관은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 해군태평양함대 사령관과 미 태평양사령관 등을 지낸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전문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



해리 해리스 전 미태평양사령관(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미군 선임 장성 등 고위인사단이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했으며 현재는 미국 국방대 시니어 펠로우이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한화 방산 사업의 근간"이라며 "미국 현지에서의 투자·생산·기술 협

력을 통해 양국 방위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 고위 인사 간 신뢰를 다지고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전자, 스마트워치로 실신 위기 알린다 LS에코에너지, 초고압 케이블 상용화 속도

## 현대모비스 'PE 시스템' 내재화 성공

생체신호 분석 기술로 징후 예측

삼성전자가 실신예측을 85%까지 맞힐 수 있는 기술로 스마트워치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AI와 헬스 기능 고도화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중앙대학교광명병원과 공동 진행한 임상 연구를 통해 갈락시워치의 생체 신호 분석 기술로 '미주신경성 실신(VVS)'을 높은 정확도로 조기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7일 밝혔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현상이

다. 특히 예기치 못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 뇌출혈 등 2차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조준환 교수 연구팀은 미주신경성 실신이 의심되는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갈락시워치6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립검사 검사를 진행했다. 갈락시워치6에 탑재된 광혈류 측정(PPG) 센서로 환자의 심박변이도(HRV)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이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신 발생 약 5분 전에 84.6%의 높은 정확도로 미주신경성 실신 징후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실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세계 최초 사례로,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헬스 학술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400kV급 하이엔드 제품 검증·인증 LS에코에너지가 400kV급 하이엔드 초고압 케이블 상용화에 착수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초고압 케이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230kV급을 넘어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비나가 400kV급 초고압 케이블 국제인증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PQ는 실제 송전망 적용을 전제로 제품 성능과 장기운전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글로벌 대형 송전망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LS-비나는

약 1년간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LS-비나는 현재 230kV급 초고압 케이블까지 생산하고 있다. 400kV급은 그동안 LS전선이 생산해 온 대표 하이엔드 제품군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LS에코에너지도 본사급 초고압 케이블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된다. LS에코에너지는 앞서 230kV급 케이블의 미국 인증을 확보하며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400kV급 PQ까지 완료하면 글로벌 메이저 송전망 프로젝트 입찰 참여 범위가 넓어져 고부가 시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S에코에너지 관계자는 "400kV급 진입은 선진 시장 확대와 함께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상반기 120KW급 개발 완료 계획 현대모비스가 전기차의 핵심 구동장치인 'PE(Power Electric) 시스템' 내재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준중형차부터 고성능 스포츠카까지 전 차종 대응도 가능해졌다. 현대모비스는 고성능 250킬로와트(kW)급 PE시스템에 이어 160킬로와트급 범용 모델도 독자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PE시스템 독자 모델 개발 과정에서 주요 부품을 공용화하고 이를 모듈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제품보다 무게는 가볍고 크기는 작아졌지만 힘은 강력해졌다. 올해 상반기에 소형 모델부터 특화된 120킬로와트급 PE시스템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